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전이양상 및 영향요인 분석

김형란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횡단적으로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유형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종단적으로 진로성숙도 전이패턴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 고용패널 II(KEEP II)의 1차년(2016), 2차년(2017)의 두 시점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진로성숙도 문항을 포함하여 관심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마이스터고 재학생 842명(남학생 690명, 여학생 152명)의 응답이다. 각 시점의 진로성숙도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에는 잠재프로파일 3단계 분석(R3STEP)을 사용하였고, 종단적 변화패턴 분석과 영향요인 검증에는 잠재전이분석과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은 적극형과 소극형 두 집단으로 분류되며 이들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개념, 부모와의 대화, 전문교과교육, 취업지도 경험이었다. 3학년 학생은 적극형, 중립형, 소극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개념, 전문교과교육, 교과 외 경험, 담임선생님의 지지였다. 둘째, 두 시점 간 프로파일 전이 패턴을 보면,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유지형, 증가형, 고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전이 패턴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은 전이 패턴 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문교과 만족도가 여러 전이 패턴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주제어 : 마이스터고 재학생,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잠재전이, 영향요인, 한국교육 고용패널 I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마이스터고는 2010년 처음 개교한 이래로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 자율운영과목의 확대, 학교 밖 학습경험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직업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다.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 산업체 현장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지역교육 시설 등의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전공실무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왔다. 급변하는 직업시장 환경과 경력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계획과 선택을 통합·조정해가는 진로성숙도는 현 정부의 직업교

1)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육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 교육을 받은 이들(마이스터고)과 일반 교육을 받은 이들을 집단(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으로 비교할 때, 직업교육이 진로성숙도 성장에 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집단의 진로성숙도 횡단연구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인 경우,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집단 전체에 대한 변화의 유형을 추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마이스터고 학생 내 서로 다른 진로성숙도 변화유형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존재하고 집단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직업교육 수료자 개개인의 변화유형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 요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직업교육’ 연구에서 주된 종속변수는 ‘소득’이었다. ‘직업교육’의 출발점 자체가 노동계급을 위한 교육으로 출발한 것임을 고려해, ‘직업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소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남재욱, 2020.5.26.). 그러나 경력개발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일과 관련된 자아(work self)’에서 ‘삶과 관련된 자아(whole self)’로 변화하고, 경력에 대한 욕구도 과거 ‘승진’에서 ‘경험 증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김귀영, 2010; 문한나, 윤수린, 박동진, 2018). ‘직업교육’이 사회이동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남재욱, 2020.5.26.), 종속변수를 개인의 정서적 변화와 자아에 두고 직업교육 수료자 개개인의 변화궤적을 비교했을 때, 일반고와 다른 취업지도 경험, 전문교과(실무)의 경험, 진로체험의 경험 등이 학생 개개인의 행복, 만족도, 진로성숙도 등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변인이라면 직업교육은 앞으로 더 정교하고 섬세한 집단으로 나누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이와 같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삶과 행복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적 변인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배상훈, 장창성, 이태희, 조성범, 2014; 어윤경, 2008; 이자형, 2015; 이명훈, 2016; 주지선, 이성원, 2019; 윤혜준, 백원영, 최명원, 2019). 그중 하나가 진로성숙도이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전 생애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학업성취도, 학교 적응, 자아정체감,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심, 윤혜준, 2019; 김혜래, 이예원, 2007).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희망과 진로에 따른 직무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 탐색 과정을 내실화하고 있고 전문교과인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이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를 실시하는 등 과목의 실질적인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과정 및 진로지도, 진로체험, 학교생활만족도,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성숙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횡단적으로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유형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종단적으로 진로성숙도 변화패턴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시점별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유형 및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전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분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 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2, 이하 KEEPⅡ)」 자료 1차년(2016), 2차년(2017)를 활용하였다. KEEPⅠ의 설문 문항을 유지하면서, 전문교과(전공)교육, 전공동아리, 기능반 운영, 산학일체형도제학교 프로그램이나 선취업-후진학 등과 같은 중등직업교육정책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유형화하고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각 시점에서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전이 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시점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진로성숙도 문항을 포함하여 관심 변수에 모두 성실히 응답한 경우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은 1차년을 기준으로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마이스터고 재학생 1020명 중, 1차년과 2차년도 진로성숙도 문항에 모두 응답한 842명이다.

〈표 1〉 마이스터고 학생 표본

	1차년	2차년
남	850	690
여	170	152
합계	1020	842

2. 측정도구

가. 진로성숙도 도구

진로성숙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의 종류는 다양하나(김연주, 2015),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 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2)」에서 진로성숙 및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문항별 평균과 신뢰도는 <표2> 와 같다.

〈표 2〉 진로성숙도 측정문항 평균 및 신뢰도

변인	측정문항	2016		2017	
		평균	신뢰도	평균	신뢰도
1	나는 새로운 직업, 진로를 개척한 사람의 사례를 알고 있다.	3.53 (0.92)	0.89	3.55 (0.81)	0.92
2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3.56 (0.84)		3.49 (0.84)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51 (0.89)		3.45 (0.87)	
4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다.	3.82 (0.83)		3.48 (0.89)	
5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 기관이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27 (0.96)		3.43 (0.86)	
6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3.79 (0.86)		3.71 (0.77)	
7	나는 희망(관심)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3.97 (0.75)		3.77 (0.74)	
8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3.72 (0.85)		3.61 (0.75)	
9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4.03 (0.75)		3.80 (0.73)	
10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3.74 (0.85)		3.73 (0.77)	
11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다.	3.95 (0.92)		3.85 (0.76)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82 (0.85)		3.79 (0.73)	
13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4.08 (0.74)		3.83 (0.76)	
14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3.79 (0.80)		3.69 (0.70)	

나. 변인구성

잠재전이 영향요인에 활용된 변인은 개인특성(성별, 신체적 건강, 행복도,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교사지지,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습경험(전문교과 만족도 평균,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경험 여부의 합, 취업지도 경험 여부의 합, 현장체험 경험 여부)이다.

성별과 현장체험 경험은 더미 코딩하였고, 자아 개념의 측정문항의 경우 1차년 6문항(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것, 결단력, 계획수행, 자존감), 2차년 5문항(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것, 결단력, 계획수행)이 사용되어, 동일한 개념 측정을 위해 1차년의 문항 중 자존감 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전문교과(전공)교육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교과 외 활동은 전공동아리와 기능반의 경험 여부를 합하여 측정변인으

로 투입하였다. 취업지도 경험은 취업상담, 채용기업정보제공, 구직활동지도, 취업박람회, 취업 캠프,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 등 총 7개의 경험 여부를 합하여 측정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은 진로교육,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진로캠프 등 총 11개 경험 여부를 합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인 구성 및 내용, 측정 문항별 평균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구성 및 내용, 측정문항 평균 및 신뢰도

영향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변수 처리	1차년		2차년		
				평균 (S.E)	신뢰도	평균 (S.E)	신뢰도	
개인 특성	성별	남성/여성	1	남성=0 여성=1	-	-	-	-
	행복도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	1	0~10점	7.39 (1.7)	-	7.31 (1.7)	-
	신체적 건강	건강인식정도	1	5점	4.05 (.89)	-	4.03 (.77)	-
	자아개념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등에 관한 이해정도	6	5점	3.86 (.76)	.846	3.74 (.63)	.86
사회적 지지	교사의 지지	교사의지지 인식정도	4	5점	3.97	.87	3.95 (.73)	.89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교생활, 흥미와적성, 미래직업(꿈, 희망), 학교 및 학과선택, 삶의 가치관 에 대한 대화정도	5	5점*	2.75 (.80)	.87	2.8 (1.0)	.93
학습 경험	전문교과(전공)만족도	전반적인 전문교과 만족도	9	5점	3.93 (.53)	.72	3.33 (.43)	.76
	교과의 활동	전공동아리, 기능반 경험여부의 합	2	0~2점	.79 (.66)	-	-	-
	진로교육및진로체험경험의 합	11개 영역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여부의 합	1	0~11점	7.16 (2.3)	.711	6.83 (2.7)	.78
	취업지도 경험의 합	7개 영역 취업지도 경험여부의 합	1	0~7점	4.28 (1.7)	-	5.14 (1.6)	.68
	현장체험 경험여부	현장체험 경험 여부	1	없다=0 있다=1	-	-	-	-

주1)역문항 : 전문교과(전공)만족도: “수업내용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 수준을 쫓아가지 못한다(Y16S01079)”
 주2)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범주형 1=전혀 하지 않음, 2=월 1회 정도, 3=주 1~2회 정도, 4= 주 3~4회 정도, 5=거의 매일로 범주화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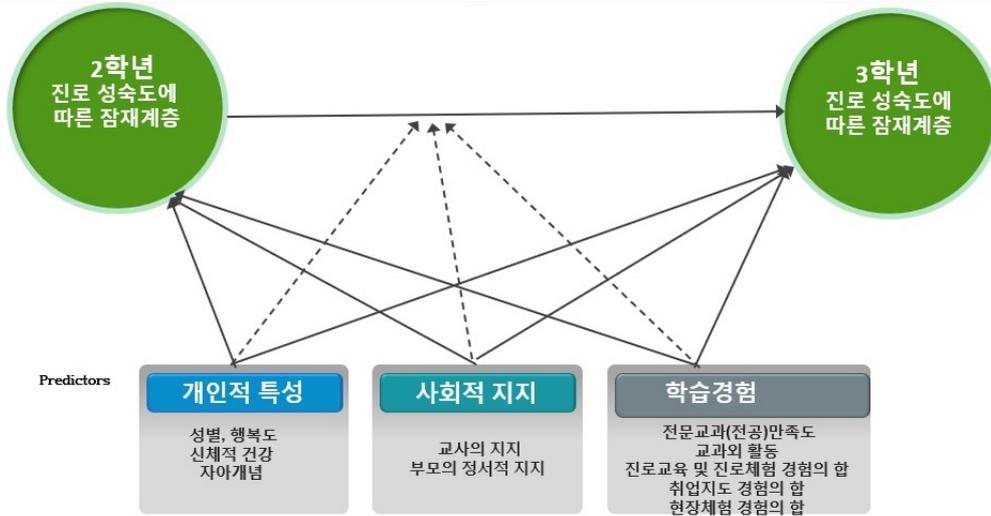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및 영향요인 분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을 포함한 혼합모형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3-step ML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1 step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공변인과 지표변수들을 함께 분석할 경우, 공변인에 따라 잠재계층이 변화하여 지표변수의 응답으로부터 잠재계층이 도출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1단계는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이때 할당된 잠재계층은 명목형 변수(nominal variable)로 일종의 확률값이다. 개인이 해당집단에 속할 확률로부터 도출된 집단이므로 실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100%가 아니므로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 1-p)가 발생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생기는 분류오류를 고정한다. 3단계에서는 고정된 각 개인의 잠재계층을 사용하여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으로 각 공변인의 효과를 계산한다. Mplus 8.3 프로그램에서는 3-step ML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보조변수(auxiliary)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변수 R3STEP을 사용하여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다(Asparouhov, T. & Muthén, B. 2014).

둘째, 잠재계층 모형 선정시 사용한 기준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ABIC,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이하, LMR LRT), 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s(이하, BLRT), Entropy, 각 유형의 최소 표본 비율(Jung & Wickrama, 2008;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Marsh, Hau, & Wen, 2004). 일반적으로 정보지수 값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인데, AIC와 BI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BIC가 AIC보다 더 적절하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는 권고를 준수하였다. LMR LRT와 BLRT 검증을 통해, p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Van Horn et al., 2009).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명확하게 되었음을 뜻하며 대략 0.6이면 중간 분류 수준, 0.8이면 높은 분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Clark & Muthen, 2009).

셋째, 각 시점에서 적절한 잠재계층 모형을 선정한 후, 각 시점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수들이 얼마나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각 시점에서 도출한 잠재집단을 사용하여 한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에서의 각 잠재집단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검토한 후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 1-p)를 고려하였다.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독립변수는 2학년(1차) 시점에 조사된 것이다.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각 시점 분류된 잠재계층의 수

가. 측정 시기별 잠재프로파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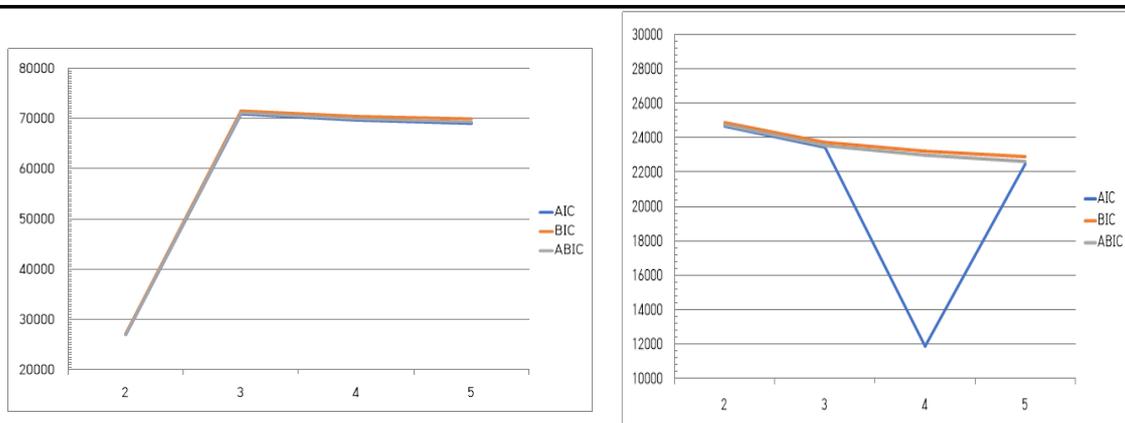
연구대상인 마이스터고 2학년과 3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수를 증가시켜가며 정보지수, 모형 비교검증 값, 분류의 질, 집단 간 분류비율, 해석의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적합한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2학년 시점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tropy 지수는 프로파일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상되었고, 정보지수(ABIC, BIC, AIC)는 잠재집단이 3개일 때까지 증가하다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이 3개 이상일 때부터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 패턴을 분석한 결과, 3개 프로파일 분류의 경우 셋 중 두 개의 집단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해석이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개 집단 분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개 집단의 분류 비율을 살펴보면 1집단(class1) 327명(38.8%), 2집단(class2) 515명(61.1%)이었다. 두 개 집단의 평균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의 점위가 0.917 ~ 0.962 사이로 사후 확률이 1에 가까운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학년 시점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Entropy 지수는 프로파일이 4개 일 때까지 늘어나다 5개일 때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보지수(AIC, BIC, ABIC)는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까지 점차 줄어들다 5개일 때 증가하였다. 프로파일이 4개 일 때 집단 간 분류 비율은 각각 34.6%, 52.8%, 1.4%, 11.0%이었다. 기타 모형적합도 및 “5% 미만이나 25명 미만일 경우 우연히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Jung & Wickrama, 2008)”라는 권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의 집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잠재집단 수는 3개로 설정하였으며 집단 간 분류 비율은 1집단(class1) 285명 (33.9%), 2집단(class2) 462명(55.0%), 3집단(class3) 92명(10.9%)이었다. 세 개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의 점위가 0.936 ~ 0.966 사이로 사후확률이 1에 가까운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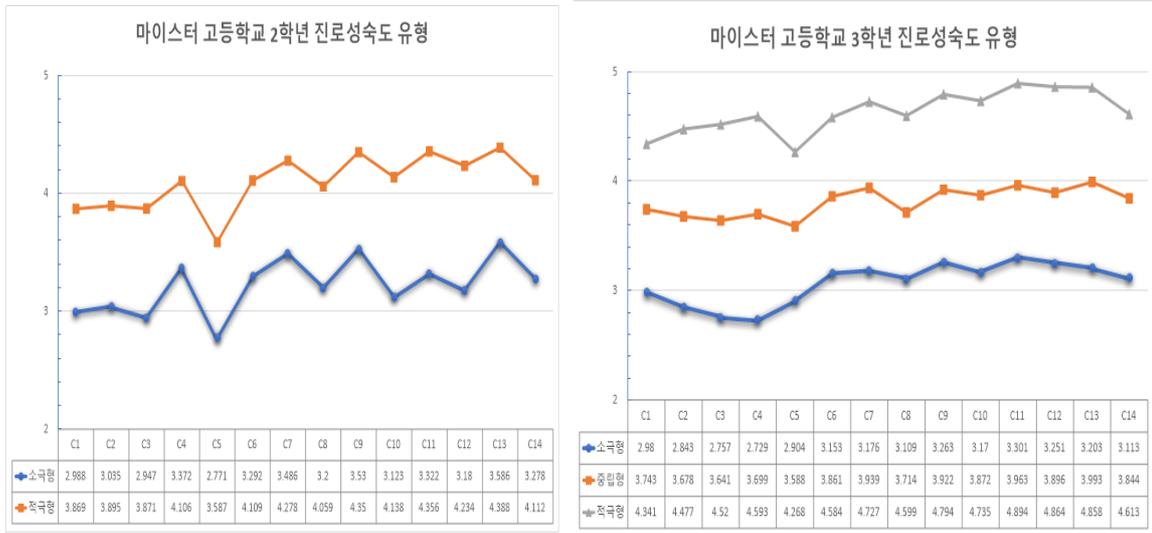
〈표 4〉 각 시점 프로파일 수에 따른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 분류비율



분류기준		2학년(1차) 프로파일 수				3학년(2차) 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26966.01	70924	69683	69032	24679.80	23456.233	11873.92	22484.52
	BIC	27169.65	71540	70455	69960	24883.29	23730.701	23219.37	22900.95
	ABIC	27033.09	71127	69937	69337	24746.73	23546.512	22987.55	22621.50
모형비교검증	LMR	p<.001	p<.05	.0375	.0385	p<.001	p<.001		
	LRT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분류의 질	Entropy	0.859	0.878	0.905	0.913	0.879	0.915	0.933	0.914
	class1	38.8%	23.6%	18.4%	21.1%	44.9%	33.9%	34.6%	1.4%
집단 간 분류비율	class2	61.1%	34.3%	43.2%	12.3%	55.0%	55.0%	52.8%	23.4%
	class3		42.0%	21.9%	39.4%		10.9%	1.4%	48.7%
	class4			16.3%	15.2%			11.0%	15.0%
	class5				11.8%				11.3%
	class5								

* p(0.05, **p(0.01, ***p(0.001

나. 시기별 잠재 프로파일 유형 및 명명



[그림 2] 각 시점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유형

다음으로 [그림 2]는 각 시점의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유형이다. 2학년(1차)과 3학년(2차)의 잠재프로파일을 명명하고, 14개의 문항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분석하여 프로파일별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2학년의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1(45.2%)의 경우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이 2.77~3.53사이였고, 집단 2(54.7%)의 경우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이 3.86~4.38 사이였다. 집단 1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3.22이고, 집단 2는 4.09였다. 집단 1이 집단 2보다 진로성숙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새로운 직업 개척 사례(2.988), 직업윤리(2.947), 진학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2.771), 진로계획(3.123) 진로준비방법(3.18)이 낮게 나타났다. 집단 1의 전체 평균이 3.22로 진로성숙의 수준이 중간 정도이나 집단 2보다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의 경우, ‘진학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한 지식(3.587)’ 항목을 제외하고, ‘새로운 직업개척사례’, ‘직업 세계변화’, ‘직업윤리’, ‘대학 및 학과정보탐색’, ‘직업정보탐색’, ‘학력 및 자격정보’, ‘졸업 이후 진로계획’, ‘준비방법’, ‘진로선택기준’, ‘어려움 극복방법’ 등 진로성숙도 요소들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적극형’ 집단으로 명명했다.

다음으로 3학년(2차)의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개의 집단은 진로성숙도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부터 ‘적극형(4.63)’, ‘중립형(3.81)’, ‘소극형(3.06)’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학생의 10.9%가 ‘적극형(4.63)’, 54.8%가 ‘중립형(3.81)’, 33.8%가 ‘소극형(3.06)’ 이었으며 2학년 때와 비교하여 한 집단이 더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학년(2차)에서는 ‘적극형’으로 명명한 집단의 진로성숙 수준(4.34~4.89)이 2학년(1차)의 ‘적극형’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고, 소극형의 진로성숙 수준(2.75~3.3)은 2학년(1차)년의

‘소극형’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감소하였다. 3학년에서 ‘중립형’ 집단으로 명명한 진로성숙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3.58 ~ 3.99 사이였다.

2. 각 시점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시점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특성(성별, 자아개념, 신체적 건강, 행복도), 사회적 지지(담임교사, 부모와의 대화), 학습경험(전공교과 교육 만족도, 교과 외 경험의 합,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의 합, 취업지도 경험의 합, 현장체험 경험의 합)을 검증하였다.

2학년의 경우,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개(자아개념, 부모와의 대화, 전문교과 만족도, 취업지도 경험의 합)로 나타났다. 첫째, 자아개념이 1단위 높아지면,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75.9% 감소하였다. 둘째, 부모와의 대화가 1단위 증가하면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29.2% 감소하였다. 셋째, 전문교과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지면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51.6% 감소하였다. 넷째, 취업지도 경험의 합이 많을수록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14.2% 감소하였다.

〈표 5〉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 영향요인

참조집단		적극형				
연구집단		소극형				
		Logit	SE	p	OR	p
2학년	성별	-0.226	0.247	0.359	0.797	0.303
	신체적 건강	0.044	0.071	0.537	1.045	0.545
	행복도	-0.077	0.119	0.518	0.926	0.501
	자아개념	-1.422	0.199	0.000	0.241	0.000
	담임	-0.04	0.141	0.777	0.961	0.772
	부모	-0.345	0.132	0.009	0.708	0.002
	전문교과교육	-0.726	0.187	0.000	0.484	0.000
	교과외경험	0.002	0.148	0.989	1.002	0.989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	-0.096	0.05	0.055	0.909	0.044
	취업지도 경험	-0.153	0.067	0.023	0.858	0.014
	현장체험경험	-0.234	0.329	0.476	0.791	0.422

* $p < 0.05$, ** $p < 0.01$, *** $p < 0.001$

3학년의 경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개였다. 자아개념, 전문교과교육 만족도, 교과 외 경험(전공동아리, 기능반)의 합, 담임선생님의 지지이다. 첫째, 자아개념이 1단위 증가하면 적극형보다 중립형에 속할 확률이 71.4% 감소하였고,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확률은 93.4% 감소하였다. 둘째, 전문교과(전공)교육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지면 적극형보다 중립형에 속할 확률이 78.9% 감소하고,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확률이

98.3% 감소하였다. 셋째, 교과 외 경험의 합이 1단위 증가하면 적극형보다 중립형에 속할 확률이 43.6% 감소하였고,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확률이 62.2% 감소하였다. 넷째, 담임교사의 지지가 1단위 증가할 때 적극형보다 소극형에 속할 확률이 47.1% 감소하였다.

〈표 6〉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 유형 영향요인

참조집단		적극형									
		중립형					소극형				
연구집단		Logit	SE	p	OR	p	Logit	SE	p	OR	p
3 학 년	성별	0.578	0.453	0.203	1.782	0.333	0.601	0.474	0.205	1.824	0.34
	신체적 건강	0.021	0.111	0.85	1.021	0.851	-0.031	0.117	0.792	0.969	0.788
	행복도	0.158	0.206	0.442	1.171	0.477	0.062	0.228	0.785	1.064	0.791
	자아개념	-1.251	0.375	0.001	0.286	0.000	-1.793	0.401	0.000	0.166	0.000
	담임	-0.401	0.302	0.184	0.67	0.102	-0.637	0.322	0.048	0.529	0.006
	부모	-0.105	0.14	0.453	0.9	0.429	-0.144	0.157	0.36	0.866	0.324
	전문교과 교육	-1.467	0.362	0.000	0.231	0.000	-2.149	0.385	0.000	0.117	0.000
	교과 외 경험	-0.572	0.222	0.01	0.564	0.001	-0.972	0.244	0.000	0.378	0.000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	-0.108	0.064	0.091	0.898	0.075	-0.093	0.073	0.207	0.911	0.186
	취업지도 경험	-0.022	0.13	0.864	0.978	0.862	-0.032	0.141	0.821	0.969	0.819
	현장체험 경험	0.505	0.327	0.123	1.656	0.225	0.507	0.327	0.121	1.66	0.225

3. 진로성숙도의 잠재전이분석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였다. 아래 <표 7>은 마이스터고 2학년-3학년 진로성숙도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확률(Latent transition probability)이고, <표 8>은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 비율이다. <표 7>에서 나타난 전이패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극형 → 적극형’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극형 → 중립형(38.4%)’으로 감소하는 패턴, ‘적극형 → 적극형(37.1%)’으로 유지하는 패턴 순이었다.

〈표 7〉 마이스터고 2학년-3학년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간 종단적 전이확률

(단위 : %)

시점		3학년(2017)			계
		적극형	중립형	소극형	
2학년 (2016)	적극형	0.37	0.38	0.24	1.00
	소극형	0.51	0.02	0.46	1.00

〈표 8〉에 나타난 전이패턴별 사례수 및 비율을 보면, 진로성숙도가 유지되는 집단인 고수준 유지(적극형→적극형) 전이패턴은 190명(22.6%)이고, 저수준 유지(소극형→소극형)은 150명(17.8%)이었다.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집단은 두 가지 유형이었다. 소극형에서 적극형으로의 전이패턴과 소극형에서 중립형으로의 전이패턴이었다. 소극형→적극형 전이 패턴의 경우 사례수는 169명(20.1%)이었고, 소극형→중립형 전이 패턴의 사례 수는 7명(0.8%)이었다.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집단은 두 집단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적극형에서 중립형으로의 전이 패턴이었으며 사례수는 197명(23.4%)이었다. 두 번째는 고수준 감소형으로 적극형에서 소극형으로 감소하는 집단이었으며 사례 수는 126명(15%)이었다.

〈표 8〉 마이스터고 2학년-3학년 진로성숙도 집단의 전이별 사례수와 비율

(단위 : %)

		3학년 (2차)		
		적극형	중립형	소극형
2학년 (1차)	적극형	190(22.6%)	197(23.4%)	126(15.0%)
	소극형	169(20.1%)	7(0.8%)	150(17.8%)

※ 괄호는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프로파일 내의 비율(%)

4. 잠재전이패턴의 영향요인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잠재전이패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2학년의 2개 프로파일과 3학년 3개의 프로파일을 연계시킨 잠재전이 패턴에서 ‘소극형→중립형’의 전이 패턴 내 사례 수 및 비율이 1%가 되지 않아 실질적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고민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 시 ‘소극형→중립형’의 경우 사례수 문제로 결과가 수렴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적극형→적극형’ 패턴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 학습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주어진 집단에 속할 확률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전이의 영향요인 (독립변수 : 1차 자료, 다항로지계수, 승산비, 유의도)

참조집단		고수준 유지(적극형→적극형)							
연구집단		저수준 유지(소극형→소극형)				증가형(소극형→적극형)			
영향요인		Logit	S.E	OR	p value	Logit	S.E	OR	p value
개인 특성	성별	-0.073	0.444	0.93	0.87	-.217	.427	.805	.611
	행복도	-0.002	0.116	0.998	0.983	-0.068	0.112	0.934	0.544
	신체적건강	-0.046	0.196	0.955	0.814	0.125	0.191	1.133	0.513
	자기이해	-1.677	0.306	0.187	0.000	-1.331	0.293	0.264	0.000
사회적 지지	교사	-0.313	0.244	0.731	0.199	-0.114	0.236	0.892	0.628
	부모	-0.278	0.194	0.757	0.153	-0.598	0.188	0.55	0.002
학습경 험	전문교과 만족도	-1.476	0.306	0.229	0.000	-1.082	0.295	0.339	0.000
	교과외경험	0.01	0.24	1.01	0.966	-0.101	0.228	0.904	0.659
	진로교육 및 체험경험	-0.024	0.082	0.977	0.773	-0.056	0.079	0.945	0.478
	취업지도경험	-0.262	0.108	0.77	0.015	-0.266	0.103	0.767	0.01
	현장체험	0.315	0.506	1.371	0.533	-0.674	0.538	0.509	0.21
참조집단		고수준 유지(적극형-적극형)							
연구집단		고수준 감소형(적극형→소극형)				저수준 감소형(적극형→중립형)			
영향요인		Logit	S.E	OR	p value	Logit	S.E	OR	p value
개인 특성	성별	-.453	.420	.636	.281	-.318	.389	.728	.413
	행복도	-0.142	0.112	0.868	0.206	-0.064	0.103	0.537	0.938
	신체적건강	0.29	0.195	1.336	0.137	0.078	0.173	0.651	1.082
	자기이해	-0.247	0.29	0.781	0.395	-0.291	0.263	0.268	0.748
사회적 지지	교사	-0.447	0.231	0.64	0.053	-0.094	0.214	0.659	0.91
	부모	-0.161	0.177	0.851	0.361	-0.191	0.157	0.224	0.826
학습경 험	전문교과만족 도	-0.681	0.289	0.506	0.019	-0.68	0.263	0.01	0.507
	교과외경험	0.039	0.226	1.04	0.862	-0.106	0.203	0.6	0.899
	진로교육 및 체험경험	0.079	0.08	1.082	0.324	0.024	0.072	0.742	1.024
	취업지도경험	-0.101	0.103	0.904	0.328	-0.134	0.093	0.148	0.874
	현장체험	-0.176	0.508	0.838	0.728	-0.595	0.469	0.551	0.204

자기이해는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저수준 유지(소극형→소극형) 전이패턴과 증가형(소극형→적극형) 전이패턴에 유의한 변인이었다. ‘자기이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고수준 유지(적극형→적극형)보다 저수준 유지(소극형→소극형), 증가형(소극형→적극형)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이 91.3%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대화는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증가형(소극형→적극형) 전이패턴 유의하였다. 부모와의 대화가 1단위 증가할수록 고수준 유지(적극형→적극형)보다 증가형(소극형→적극형)에 속할 확률이 45% 감소하였다.

전문교과 만족도는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저수준 유지, 증가형, 고수준 감소형 전이패턴에 유의하였다. 전문교과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고수준 유지 전이패턴보다 저수준 유지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은 71.1% 감소하였고, 증가형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이 67.1% 감소하였으며, 고수준 감소형에 속할 확률은 49.4% 감소하였다.

취업지도 경험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저수준 유지, 증가형 전이 패턴에 유의하였고, 취업지도 경험의 합이 1단위 증가할수록 고수준 유지 전이 패턴보다 저수준 유지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이 23%로 감소하였다. 고수준 유지 전이 패턴보다 증가형 전이 패턴의 경우에 속할 확률은 23.3% 감소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이스티고 재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유형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이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이스티고의 수업과 프로그램이 이러한 전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티고 2학년과 3학년 시기의 진로성숙도는 각각 2개 집단(적극형, 소극형)과 3개 집단(적극형, 중립형, 소극형)으로 분류되었다. 2학년 시기에 진로성숙도 유형을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개념, 부모의 지지, 전공 교과교육, 취업지도 경험의 합이었다. 3학년 시기는 전문교과 교육과 교과 외 활동(전공동아리, 기능반)의 예측력이 2학년 때보다 더 명확히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 전이의 패턴을 보면, 고수준 유지, 저수준 유지, 증가, 고수준에서 저수준 감소로 구분되었다. 증가패턴 중 ‘소극형→중립형’의 경우, 사례 수 및 비율이 1%가 되지 않아 실질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마이스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패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수준에서 저수준으로 감소하는 집단과 지속해서 저수준에 머무르는 집단의 비율이 각각 126명(15%), 150명(17.8%)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스티고 수업과 진로지도가 학생의 진로개발 및 직업준비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배상훈, 김환식, 김효선, 2011; 최수정, 장명희, 김종우, 박미화, 김정윤, 2011)와 다르다.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과 진로지도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으나 집단을 세분화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진로성숙도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11개의 변수 중 유의미한 변수는 4개(자기 이해, 부모의 지지, 전문교과교육 만족도, 취업지도 경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이해는 저수준 유지(소극형→소극형) 전이 패턴과 증가형(소극형→적극형) 전이 패턴에 유의하였고($p < .001$), 전문교과교육 만족도는 ‘적극형→중립형’을 제외한 모든 전이 패턴에서 유의하였다($p < .05$). 전문교과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고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 증가, 고수준 감소에 속할 가능성이 각 71.1%, 69.1%, 4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담, 채용기업정보제공, 구직활동지도,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 등 취업지도 관련 경험이 1단위 증가할수록 고수준 유지 전이 패턴보다 저수준 유지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이 23%로 감소하고 고수준 유지 전이 패턴보다 증가형 전이 패턴의 경우에 속할 확률은 2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형이 고수준 유지형으로 이동하거나, 저수준 유지형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 전문교과에 대한 몰입, 취업경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의 예측변수로 투입된 전문교과(전공)교육 만족도, 교과 외 활동(전공동아리, 기능반)의 합, 취업지도 경험의 합,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경험의 합은 학교별·지역별로 그 영향력이 같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학교별·지역별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시하고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수준 자료의 전국 표집이라는 측면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이 크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마이스터고 2학년(2016)과 3학년(2017) 두 시기만을 연계한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잠재전이 분석은 먼저 각 시점의 프로파일 개수를 확인하면서 연계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점별 프로파일의 수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전이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패턴 외에 다양한 전이 유형이 다른 자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귀영(2010). 지방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방안연구-이론과 사례 검토를 통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1-23.
- 김동심, 윤혜준(201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변인 분석 및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4, pp. 1-18.
<https://www.krivet.re.kr/ku/ha/kuCAELs.jsp> (2020.7.30.검색)
- 김미림, 유예림, 황은희, 김선용(2019).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성숙도의 발달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pp.173-197.
- 김종운, 김말선(201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pp.201-227.
- 남재욱(2020.5.26.). 한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https://www.youtube.com/watch?v=rSRhuxtobRQ> (2020.7.30.검색)
- 문한나, 윤수린, 박동진(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1, pp.1-228.
-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pp.155-180.
- 배상훈·장창성·이태희·조성범(2014). 마이스터고 연구의 동향과 과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및 내용 분석. 직업교육연구, 33(3), pp.83-104.
- 배상훈, 조성범, 장창성(2014).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장에 대한 마이스터고 효과: 2시점 유사종단 연구. 직업교육연구, 33(5), pp.107-132.
-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pp.23-41.
- 이정민·정혜원(2019).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학생 및 학교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1), pp.279-311.
- 이명애(2006).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pp.161-181.
- 이명훈(2016).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2), pp.149-166.
- 이자형(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pp.289-316.
- 주지선, 이성원(2019).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가정요인을 중심으로.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4, pp. 1-18.
<https://www.krivet.re.kr/ku/ha/kuCAELs.jsp> (2020.7.30.검색)
- 최문경·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pp.23-48.
- Hong, S., B. KIM, & M. Wolfe.(2005). A Psychometric Reversion of the European American Values Scale for Asian American Using the Rasch Model, *Measurement and Educ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

- Asparouhov & Muthén (2013).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pp.329-341.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3-step approaches using Mplus*.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Retrieved August 8, <http://www.statmodel.com/examples/webnotes/webnotes15.pdf>
- Akaike, H. 1983. Information Measures and Model Selection.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44, pp.277-291.
- Colins, L. M., & Lanza, S. T. (2013).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Holland, J. L. (198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o, Y., Mendell, N. R., and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pp.767-778.
- Muthén, L. K., & Muthén, B.O.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pp.882-891.
- Muthén, B.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Muthén, L. K., & Muthén, B.O. (2010),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User's guide.
-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pp.535-569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pp.461-464.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pp450-469
- Wang, J. H.& Guthrie, J. T(2004), Modeling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mount of reading, and past reading achievement on text comprehension between U.S. and Chines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9, pp.162-186.
- Wingfield, A.& Gruthie, J(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pp.420-432.

❖ Abstract ❖

An Analysis of Transition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Kim Hyung Ran(Pusan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oss-sectionally verify the typ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o longitudinally analyze the change patterns of their career maturity an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m.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the first year (2016) and the second year (2017) results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 II) survey. In the first year of the survey, the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ere sophomores, and in the second year, they were seniors. The data used for final analysis were the responses of the 842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690 male students and 152 female students) who answered all 14 items related to career maturity. Three-step latent profile analysis (R3STEP) was used to verify the typ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maturity at each point in time,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and verify influencing facto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ister high school sophomores were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group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se profiles were self-concept, interaction with the parents, specialized subject education, and experience of vocational guidance. The seniors were divided into active, neutral, and passive groups, and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se groups were self-concept, specialized subject education, extracurricular experience, and support from the homeroom teacher. Second, the profile transition patterns between the two points in time were identified as high-level maintenance type, low-level maintenance type, increase type, high-level decrease type, and low-level decrease type. Third, whil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se transition patterns differed by patterns, specialized subject education w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distinguished various transition patterns.

Key words: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Latent profile, Latent transition, Influencing factors,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